

상담자 역량 연구의 동향

박애실* (한양대학교) · 박알뜨리** (건국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상담 및 심리 치료 분야에서 이루어진 상담자 역량 연구에 대한 동향 분석을 분석하여, 상담자 역량 연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최종 79편의 논문을 분석준거에 따라 평정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진로 상담 분야에서 역량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후로 2020년에는 역량 연구의 분야가 확대되었으며, 13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둘째, 역량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면, 역량모형개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경험탐색 및 역량 인식에 대한 연구, 역량척도개발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담자 역량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 혼합 연구, 질적 연구 방법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연구 방법 중에서는 델파이 방법이 가장 많은 빈도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 분야에 따른 연구 목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상담과 다문화상담 분야의 경우 다양한 연구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된 반면, 그 외 분야에서는 두 분야만큼 역량에 대한 연구의 목적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상담자 역량 연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상담 및 심리 치료, 상담자, 역량, 상담자 역량, 연구 동향

I. 서론

최근 높은 자살률과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마음건강을 다루는 전문상담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담 분야의 양적 팽창에 맞춰 상담전문가들이 갖춰야 하는 상담 역량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려는 질적인 시도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22년 국내에서는 심리사법이 발의되면서 상담자의 역할과 전문성의 범위에 대한 활발한 논의들이 상담 분야 내외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상담자의 역할과 직무에 대해 명확히 밝히려는 역량 연구는 상담전문가가 전문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며(최윤미, 2003; Goodyear et al., 2008) 결국 상담 전문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역량(competency)이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구체적인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Spencer & Spencer, 1993; 유현실, 2009 재인용)으로

* 제1저자,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조교수, aeshilpark@hanyang.ac.kr

**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육대학원 조교수, altteuri@kku.ac.kr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 또한 역량은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 가치 등 가시적 및 비가시적 인간 능력을 모두 포함한다(Spencer & Spencer, 1993). 국내 상담분야에서 역량 연구를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진로상담이다. 2008년 미국, 캐나다, 호주의 진로교육 전문가의 역량 비교에 대한 문헌연구(조대연, 현영섭, 2008)가 진로상담분야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2011년부터 진로상담분야에서 역량진단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김수향, 탁진국, 2011),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량(박용호, 2011), 진로상담전문가의 역량모형 개발(유현실, 김창대, 2011) 등 진로분야에서 역량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Leahy, Chan, 그리고 Saunders(2003)는 상담자의 역량 규정이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첫째, 상담자의 역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상담전문가로서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다른 전문직과 차별화된 상담전문가로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의 범위와 수준을 규정한다. 유현실(2009)은 진로상담전문가는 전문가, 상담자, 진로서비스 종사자라는 세 가지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진로 관련 유사 전문가와 개인심리상담으로 지칭되는 상담자 일반과 차별화된 진로상담전문가의 역량 모형을 개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외에도,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김경신, 박정식, 2019),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역량 모형(박성현, 천성문, 2021)과 같이 새로운 상담 직업군의 상담자 역량을 밝히려는 연구도 국내에서 진행되었다. 둘째, 상담자의 역량에 대한 규정은 상담자 교육 과정 개발에 도움이 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상담전공 학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김인규(2020)와 조남정(2016)의 연구이다. 청소년상담사 3급이 2003년 배출되기 시작하고, 학부에 상담학과가 개설되면서, 학부 수준의 상담자 양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에 따라 상담전공 학부 수준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상담 역량에 초점을 둔 미술치료전공 교육 과정을 개발한 김재훈과 서영석(2018)의 연구와 상담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원 교육방안을 조사한 김춘희와 손은령(2019)의 연구도 상담자 교육 과정 개발에 역량 연구가 활용된 예이다. 셋째, 역량은 상담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제시해주는 기능을 한다. 김인규와 김승완(2020)은 국내에 4000여개에 달하는 심리상담 분야 민간자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활용한 청소년상담사와 전문상담사 등 기존 상담자 자격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역량 모형은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지적 전략을 포함하는 역량` (McLagan, 1996, 이홍민, 김종인, 2003, 재인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개념적 틀이다. 역량 모형은 수행의 목표가 전형적인 수준이 아닌 최적의 수준이며, 직무의 시간적 지향성이 과거가 아닌 미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Sanchez & Levine, 2009). 따라서 역량 모형은 상담분야와 같이 비교적 역할이 복잡하고 비전형적인 속성이 강한 직무 환경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적응적인 상담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런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최적의 수준에 대한 역량 정보는 초심상담자가 자신의 상담 영역에서 보다 쉽고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는, 유현실(2009)의 진로상담전문가 역량 모형 개발을 시작으로, 청소년상담사의 역량 모형(조수연, 양미진, 2013), 기업상담전문가

의 역량 모형(남현주, 2014), 다문화상담역량 모형 모형(이영란, 2021), 자살위기상담전문가의 역량 모형(박애실, 이준원, 박알뜨리, 2022) 등 상담 각 영역의 역량 모형 개발이 국내에서 시도되었다.

한편, 국내의 역량 모형 개발 연구는 주로 델파이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각 분야 상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 상담영역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역량을 합의해내는 귀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들은 역량군-역량요소-역량지표의 위계적 3단계 구조로 역량을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진로상담전문가의 역량 모형 연구(유현실, 2009)와 자살위기상담전문가의 역량 모형 연구(박애실 외, 2022)는 상세한 역량지표를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는데, 궁극적으로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역량지표는 역량의 각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내적인 상태 혹은 행동을 의미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상태 및 행동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실제 적용상의 의미를 갖는다(Spencer & Spencer, 1993).

국내 상담 역량 연구는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역량의 특성인 맥락성을 고려하여 미국을 비롯한 외국과 다른 국내의 맥락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밝히는 것이다. 역량은 상황적 요구에 맞추어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손민호, 2006), 특정한 맥락적 상황에 있는 내담자의 특성에 맞추어 자신의 역량을 끊임없이 수정 및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박애실 외(2022)는 국외의 자살위기상담전문가의 역량 문헌 조사와 국내 자살위기상담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함께 진행하여 델파이 설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가지고 국내 자살위기상담전문가 다수를 대상으로 자살위기상담전문가의 역량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미국과 다른 법적체제와 사회문화적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내 맥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살위기상담의 상황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 모형을 도출해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의미가 있다.

다른 하나는 각 상담 역량 간의 공통역량과 특수역량을 밝히는 것이다. 공통역량을 밝히려는 시도는 상담자 양성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지만, 상담 영역마다의 특성이 반영된 특수 역량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진로상담에서 역량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이유는 일반상담과 공유된 역량 이외 진로상담만의 특수한 역량이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시도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남현주(2014)는 기업 내 상담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기업상담자를 대상으로 기업상담자 역량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반상담과 공통된 부분 이외 기업상담에서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구분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결과, 상담행정, 교육, 훈련과 같은 일반상담 역량(최윤경, 2004)이 도출되었지만, 기업 상담 실제관련 지식, 자문 및 중재, 조직관련 업무수행과 같은 기업 상담에서도 요구되는 차별화된 역량도 도출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상담 영역과 상담 대상에 따른 상담의 역량을 밝히려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왔고, 상담 분야와 대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담자 역량 연구의 동향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의 흐름을 제시하고, 상담 분야 역량 연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보고, 향후 국내 상담자 역량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동안의 상담 분야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귀납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연도별, 상담자 역량 연구의 연구 분야별, 대상별, 연구 방법별 흐름을 살펴보고,

상담자 역량 연구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연구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 역량 연구의 연구 분야별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연도에 따른 (연구분야별, 연구대상별, 연구목적별, 연구방법별) 상담자 역량 연구의 동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논문 선정 기준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순서로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상담자 역량 연구 논문을 선정하였다. 첫째, KISS, Dbpia, RISS에서 ‘역량’과 ‘상담’ 혹은 ‘심리치료’ 키워드를 포함한 200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발간된 등재지 논문을 검색하였다. 본 연구가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상담자 역량 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상담자 역량’을 키워드로 포함하지 않는 논문들이 다소 발견되어 ‘역량’, ‘상담’, 혹은 ‘상담치료’ 검색 키워드로 범위를 넓게 설정하였다. 둘째, 학술대회 발표자료와 중복된 자료를 제외하고, 초록과 내용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주제를 포함하지 않은 논문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최종 79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2. 분석준거 설정 과정

본 연구에서는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상담자 역량 관련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상담학 분야 현직 교수 2인이 초기 논문 선정부터 분석 전체 과정을 함께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동향 연구를 참고하였다. 조남정 외(2010)는 상담학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평정 도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상담학 연구 10편에서 사용된 분석틀을 참조하여 기초사항,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통계분석으로 정리하여 사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남정 외(2010)의 분석틀이 기존 심리치료 및 상담학 분야의 분석틀을 통합한다고 판단하여 이 연구의 분석틀을 기초로 하되, 선별된 79편의 등재지 논문을 2인의 연구자가 함께 읽으면서 본 연구에 필요한 분석틀을 추가 및 수정하여 잠정적인 분석틀을 수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금명자, 정상화(2021)의 분석틀을 참고하였다. 잠정적인 분석틀은 연구자들이 논의하여 지속적으로 수정하였고, 수정된 분석틀에 맞추어 다시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쳤다. 예를 들어 조남정 외(2010)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초사항, 연구대상, 연구방법, 통계분석은 포함시켰으며, 연구주제를 연구목적으로 변경하였다. 연구 분야의 경우 금명자, 정상화(2021)의 상담자 발달 연구 동향에서 제시한 전문성 영역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역량 연구 분야로 명명하였다. 이후, 2인의 연구자가 최종 분석틀에 맞추어 평정하는 작업을 함께 수행하였다.

3. 분석준거

분석틀은 기초사항, 연구분야, 역량 연구의 대상, 역량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으로 구성되었으며 <표 1>에 제시하였다. 평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200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16년 동안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연도별로 분류하여 연도별 연구분야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연구분야는 1) 일반상담, 2) 진로상담, 3) 학교상담, 4) 아동상담, 5) 청소년상담, 6) 가족상담, 7) 다문화상담, 8) 기업상담, 9) 매체치료상담, 10) 기타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두 개 이상의 분야를 동시에 다루는 연구의 경우 1/n으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이동훈 외(2014)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다문화청소년 상담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는 <표 3>에서 청소년상담 0.5, 다문화상담 0.5으로 계산하였다. 이와 같이 중복으로 표기된 경우 <표 2>에서도 *으로 표기하였다. 둘째, 연구목적에 의한 분류는 1) 역량모형개발, 2) 경험탐색/역량에 대한 인식, 3) 역량척도개발, 4) 교육요구 및 교육과정 개발, 5) 프로그램 효과 및 만족도, 6) 다른 변인간 관계, 7) 역량집단분류/발달단계, 8) 자격표준화/정책제안 등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연구방법에 의한 분류는 우선 <표 6>에 양적, 질적, 문헌, 혼합연구으로 분류하였다. 이후에 다시 세부 연구방법을 <표 7>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평균분석, 2) 요인분석, 3) 상관분석, 4) 변량분석, 5) 빈도분석, 6) 다변인간인과관계분석, 7) 회귀분석, 8) 잠재집단분석 9) 보리치 요구도분석 10) 계층화분석법(AHP), 11) The Locus for Focus은 양적연구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상담자의 역량 탐색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12)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 면담부터 시작하여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 및 사분위점수 등을 활용하는 등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혼합 연구로 분류하였다. 13) 개념도 역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해 진술문을 도출해내고, 그 결과를 군집 분석을 통해 유사성을 분류하는 작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혼합 연구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14) 내용분석 15) 합의적 질적분석 16) 현상학 17)근거이론 18) 내러티브 방법은 질적연구방법으로 분류하였다.

<표 1> 상담자 역량 연구의 평정 영역 및 세부사항

평정 영역	평정 세부사항
기초사항	출판연도, 저자명
연구분야	상담 일반, 진로상담, 학교상담,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가족상담, 다문화상담, 기업상담, 매체치료상담, 기타
역량 연구의 대상	상담자 일반, 상담전공 학부생, 진로및직업상담자,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 예비교사, 아동상담자, 청소년상담자, 대학상담자, 다문화상담자, 기업상담자, 매체활용심리상담사, 가족상담자, 기타
역량 연구의 목적	역량모형개발, 경험탐색/역량에 대한 인식, 역량척도개발, 교육요구 및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효과 및 만족도, 다른 변인간 관계, 역량집단분류/발달단계, 자격표준화/정책제안
연구방법	양적 방법(평균분석, 요인분석, 상관분석, 변량분석, 빈도분석, 다변인간 인과관계분석, 회귀분석, 잠재집단분석)
	혼합 연구(델파이, 개념도)
	질적 방법(CQR, 현상학, 근거이론, 내러티브)
	문헌 연구

Ⅲ. 연구결과

1. 상담자 역량 연구 분야

본 연구에서 최종 확정된 79편의 상담자 역량 연구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상담 일반 분야에서 이루어진 상담자 역량연구의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이소연 외(2014)의 연구를 시작으로 상담일반 역량 13편 이외에도, 애도상담 역량, 자살위기상담 역량, 수퍼바이저 역량 분야에서 각 1편씩 연구가 이루어져 총 16편의 연구가 포함되었다. 학교상담 역량의 세부 분야는 학교상담역량에 대한 연구 3편 이외에도, 특수학생상담의 역량에 대한 연구가 3편 이루어졌다. 다문화상담 역량 분야에서는 다문화상담 연구 14편 이외에도 LGBT상담의 역량 2편, 사회정의옹호상담 역량 6편 등이 포함되었다. 매체치료상담 분야에서는 미술치료, 놀이치료, 수퍼비전, 스포츠심리상담을 포함하여 총 8편의 역량 연구가 포함되었다.

〈표 2〉 분야별 상담자 역량 연구

역량 연구 분야		연구자(연구년도)
상담 일반	상담 일반	이소연, 최바을, 이정선, 서영석(2014), 조남정(2016), 김형수(2018), 김춘희, 손은령(2019), 김인규(2020), 김인규, 김승완(2020), 유현실, 서미아, 이주영(2020), 윤아름, 변시영, 조민경, 이겨라(2020), 이소연, 안수정, 서영석(2020), 김도희(2021), 조향, 금창민(2022), 리수현, 김창대(2022), 김훈희, 조남정(2023)
	애도상담	전희정(2018)
	자살위기상담	박애실, 이준원, 박알뜨리(2022)
	수퍼바이저	장세미, 장성숙(2016), 주수현(2023)
진료상담	진료상담	조대연, 현영섭(2008), 김수향, 탁진국(2011), 박용호(2011), 유현실, 김창대(2011), 류영철(2014), 최윤정, 이계경(2014), 김학아, 김봉환(2015), 양현정, 박은혜, 양혁, 이상민(2016), 최윤정, 김지연(2016), 류영철(2017), 장진이, 천영민, 홍원경(2017), 장창국, 이지연(2017), 김민선(2018), 박은솔, 안선희, 조대연(2018), 김경신, 박정식(2019), 오정숙(2019), 이무진, 주동범, 김광석, 이원석(2019), 조명기(2019), 김강호, 정동열(2020), 김민선(2020), 이진구, 정홍전(2020), 이봉재, 박수정(2021), 이세희, 박정식(2022)*
	학교상담	정환경, 김수경(2017), 구본용, 임애자(2022), 전은경, 오인수(2022)
	특수학생상담	서유진(2011), 박성현, 천성문(2021), 이세희, 박정식(2022)*,
	아동상담	김혜영, 심혜원(2014)*, 김성진, 한유진(2018)*,
	청소년상담	조수연, 양미진(2013), 이동훈, 고희월, 양미진, 신지영(2014)*,
	가족상담	조은숙, 권혜영(2022)
다문화 상담	다문화상담	이아진, 최연실(2011), 구자경(2012), 김봉환(2012), 김혜영, 심혜원(2014)*, 이현정(2014), 이동훈, 고희월, 양미진, 신지영(2014)*, 박승진, 임선영, 이모영(2018), 임은미, 강혜정, 김성현, 구자경(2018), 강수정, 유금란(2020), 구자경, 임은미, 장은정(2020), 남지은, 남지혜, 김동일(2020), 김미선, 임은미(2021)*, 이영란(2021), 이아라, 이주영(2022)*,
	LGBT상담	이아라, 이주영(2022)*, 이주영, 윤은희, 이아라(2020),
	사회정의옹호상담	임은미(2017), 임은미, 강혜정, 구자경(2018), 김미진, 권경인(2019), 안혜신, 장유진(2021), 김미선, 임은미(2021)*, 이재복, 장소정, 김영신, 남목민, 조훈제, 이수정, 연구진(2022),

역량 연구 분야	연구자(연구년도)
기업상담	남현주(2014), 변시영,조한익(2015)
미술치료	김재훈, 서영석(2018), 안승희, 전순영(2018), 최윤희, 김태완(2021)
놀이치료	김성진, 한유진(2018)*
매체 치료 상담	매체심리치료 슈퍼비전 홍주연, 서귀남(2013)
음악치료 슈퍼비전	박지선(2020), 배미현(2022)
스포츠 심리상담	장덕선(2014)
기타	NLP 상담 이성엽, 김재관(2014)
범죄피해케어전문가	이은아, 고은영(2017)

2. 연도에 따른 상담자 역량 연구 분야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상담자 역량 연구 게재 논문수는 2008년도에 1편으로 시작하여 증가와 감소를 반복되다가 2020년도에 13편으로 가장 수가 많았고 현재까지 79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과 같이 역량 연구 분야에서는 진로상담관련(28.5%)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다문화상담(24.1%), 상담일반(21.5%), 매체치료상담(9.5%), 학교상담(7.0%)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상담, 다문화상담, 상담일반 분야에서 이루어진 역량 연구가 전체 의 약 75%를 차지하는 반면에,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가족상담, 기업상담 분야에서의 역량 연구는 각 1-2편 이내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자 역량 연구는 2008년 미국, 캐나다, 호주의 진로교육 전문가의 역량 비교에 대한 문헌연구(조대연, 현영섭, 2008)로 진로상담분야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2011년부터 진로상담분야에서 역량진단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김수향, 탁진국, 2011),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량(박용호, 2011), 진로상담전문가의 역량모형 개발(유현실, 김창대, 2011) 등 진로분야에서 국내 상담자 역량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다문화상담 분야에서 역량연구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과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연구(이아진, 최연실, 2011)를 시작으로 청소년상담자의 문화적 역량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효과분석(구자경, 2012), 조화와 통합 지향 카운슬링을 위한 상담자 역량 탐색(김봉환, 2012), 다문화아동상담교육실태 및 상담자 역량에 관한 연구(김혜영, 심혜원, 2014)등 다문화상담분야에서 국내 상담자 역량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상담일반은 진로상담과 다문화상담 분야에 비해 늦게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슈퍼바이저가 경험한 상담수련생의 전문적 역량의 문제(이소연 외, 2014)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상담수퍼바이저 교육과 훈련요소 연구가 슈퍼바이저 발달요인과 슈퍼바이저 역량요인 중심으로 한 연구(장세미, 장성숙, 2016)와 상담전공 학부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탐색적 연구(조남정, 2016)가 진행되었다. 2020년도에는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심리상담 국가직무능력 표준(NCS)을 활용한 심리상담자격 표준화 방안(김인규, 김승환, 2020), 상담자 역량발달 학부교육과정개발(김인규, 2020), 상담전공 학부생의 전공역량 모형 구축 및 자가 평가도구 타당화(유현실 외, 2020), 상담수

련생이 경험한 동료수련생의 전문적 역량문제(이소연 외, 2020) 등이 진행되었다.

매체치료상담 분야에서는 매체심리치료 전반의 수퍼비전 역량에 대한 연구(홍주연, 서귀남, 2013)를 시작으로 스포츠 심리상담자 역량 검사지 개발 연구(장덕선, 2014), 미술치료 역량에 대한 연구(김재훈, 서영석 2018; 안승희, 전순영, 2018; 최윤희, 김태완, 2021)와 음악치료 수퍼바이저 역량에 대한 연구(박지선, 2020; 배미현, 2022)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학교상담 분야에서는 예비상담교사들의 장애학생 상담 역량에 대한 연구(서유진, 2011)를 시작으로 전문상담교사의 역량 척도 개발 연구(정환경, 김수경, 2017),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역량 모형 개발 연구(박성현, 천성문, 2021), 초등 및 중등 전문상담교사의 학교상담 역량에 대한 요구도 차이 분석(전은경, 오인수, 2022) 등이 이루어진 바 있다.

〈표 3〉 연도별 상담자 역량 연구 분야

연도 (년)	역량 연구 분야										계 (%)
	상담일 반	진로 상담	학교 상담	아동 상담	청소년 상담	가족 상담	다문화 상담	기업 상담	매체치 료상담	기타	
2008		1									1 (1.3)
2011		3	1				1				5 (6.3)
2012							2				2 (2.5)
2013					1				1		2 (2.5)
2014	1	2		0.5	0.5		2	1	1	1	9 (11.4)
2015		1						1			2 (2.5)
2016	2	2									4 (5.1)
2017		3	1				1			1	6 (7.6)
2018	2	2		0.5			3		2.5		10 (12.7)
2019	1	4					1				6 (7.6)
2020	5	3					4		1		13 (16.5)
2021	1	1	1				3		1		7 (8.9)
2022	3	0.5	2.5			1	2		1		10 (12.7)
2023	2										2 (2.5)
계 (%)	17 (21.5)	22.5 (28.5)	5.5 (7.0)	1 (1.3)	1.5 (1.9)	1 (1.3%)	19 (24.1)	2 (2.5)	7.5 (9.5)	2 (2.5)	79 (100)

이 외에도, 아동 상담 분야에서는 다문화아동상담교육실태 및 상담자 역량에 대한 연구(김혜영, 심혜원, 2014)와 놀이치료사의 부모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김성한, 한유진, 2018)에 대한 연구 등이 있으며,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는 청소년상담사의 역량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조수연, 양미진, 2013),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다문화 청소년 상담역량에 대한 연구(이동훈 외, 2014)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기업 상담 분야에서는 기업 상담자의 역량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남현주, 2014)와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의 역량에 대한 연구(변시영, 조한익, 2015) 등이 이루어졌다.

3. 연도에 따른 상담자 역량 연구의 대상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상담자 역량 연구의 대상을 <표 4>를 통해 살펴보면, 상담자 일반(31.6%)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진로전담교사(13.9%), 직업 및 직업상담자(10.8%), 매체활용심리상담사(10.1%), 상담전공학부생(6.3%), 전문상담교사(6.3%) 순이었다. 예비교사, 아동상담자, 청소년상담자, 대학상담자, 기업상담자, 가족상담자 대상 역량 연구는 3편 이하로 적게 나타났다.

상담자 일반을 대상으로 한 역량 연구는 2012년과 2014년 각 1편으로 드문드문 이루어지다가, 2016년부터는 매년 1편 이상씩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18년에는 5편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20년에는 7편, 2022년에는 4편이 이루어졌다. 상담전공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역량 연구는 2016년 1편, 2020년 2편, 2022년, 2023년 각 1편이 이루어졌다.

진로및직업상담자 연구는 2008년 1편의 연구를 시작으로 2011년 2편, 2014년, 2015년, 2017년 1편씩 이루어졌고, 2020년에는 2편의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진로전담교사의 경우 2011년에 역량 연구가 처음 등장하였고, 2015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편 이상씩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2017년에는 2편, 2019년에는 3편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진로전담교사에 비해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역량 연구는 그 수가 적다. 2011년, 2017년, 2021년 각 1편씩 연구가 이루어졌고, 2022년 2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청소년상담자의 역량에 대한 연구는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대학상담자 역량은 2019년, 2020년에 이루어진 바가 있으나 1.5편으로 수가 적었다. 다문화상담자 역량에 관한 연구는 2014년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2018년, 2021년에 1편씩 등장하였다. 기업상담자 역량 연구 또한 2014년에 처음 등장했으며, 2015년과 2021년에 1편씩 이루어졌다. 매체활용심리상담사에 대한 연구는 2013년, 2014년 각 1편, 2018년에 3편이 등장했고, 2020년, 2021년, 2022년 각 1편씩으로 집계되어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상담자 대상 역량 연구는 2011년 1편, 2022년 1편 등으로 거의 10년에 1편 꼴로 등장하였다. 그 밖에 예비교사의 상담역량이 2016년에 1편, 아동상담자의 역량 연구가 2014년에 1편씩 이루어졌다.

〈표 4〉 연도에 따른 상담자 역량 연구의 대상

연도 (년)	역량 연구의 대상													계 (%)	
	상담 자 일반	상담 전공 학부 생	진로 및 직업 상담 자	진로 전담 교사	전문 상담 교사	예비 교사	아동 상담 자	청소년 상담 자	대학 상담 자	다문 화상 상담 자	기업 상담 자	매체 활용 심리 상담 사	가족 상담 자		기타
2008			1												1 (1.3)
2011			2	1	1								1		5 (6.3)
2012	1							1							2 (2.5)
2013								1				1			2 (2.5)
2014	1		1	1			1	0.5		1.5	1	1		1	9 (11.4)
2015			1								1				2 (2.5)
2016	1	1		1		1									4 (5.1)
2017	1		1	2	1									1	6 (7.6)
2018	5			1						1		3			10 (12.7)
2019	2		0.5	3					0.5						6 (7.6)
2020	7	2	2						1			1			13 (16.5)
2021	2			1	1					1	1	1			7 (8.9)
2022	4	1		1	2							1	1		10 (12.7)
2023	1	1													2 (2.5)
계	25	5	8.5	11	5	1	1	2.5	1.5	3.5	3	8	2	2	79
(%)	(31.6)	(6.3)	(10.8)	(13.9)	(6.3)	(1.3)	(1.3)	(3.2)	(1.9)	(4.4)	(3.8)	(10.1)	(2.5)	(2.5)	(100)

4. 연도에 따른 상담자 역량 연구 목적

이제까지 이루어진 상담자 역량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상담자의 역량모형개발을 위한 연구가 30.4%(24개)로 가장 많았고, 경험탐색 및 역량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 24.7%(19.5개), 역량척도개발을 위한 연구 15.8%(12.5개)로 순으로 나타나 전체 역량 연구 가운데 위의 3가지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전체의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교육 요구 및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9.5%), 프로그램 효과 및 만족도를 알아보기 연구(7%), 다른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6.3%), 역량 집단을 분류하거나 발달단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3.8%),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2.5%)순으로 나타났다.

역량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의 경우 2008년 1편(진로지도 전문가 대상)을 시작으로 매년 1편 이

상씩 꾸준히 연구가 되었고, 2014년에 3편(기업상담자, 진로진학상담교사, NLP 상담전문가 대상 연구), 2022년에 5편(자살위기사담전문가,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학부 졸업생, 음악치료 수퍼바이저, 전문상담교사 대상)이 연구되는 등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경험탐색 및 역량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는 2011년에 1편(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으로 시작되었고, 2014년에는 3편(다문화 청소년 대상 상담역량, 상담수련생의 역량, 다문화 역량)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20년에는 4편(유학생 대상 다문화상담, 상담 기관별 상담자 역량 인식, 상담수련생 역량 인식, 음악치료 수퍼바이저 역량), 2021년에도 4편(장애인 내담자 대상 역량, 기업상담자의 다문화 및 옹호 상담, 사회정의 옹호역량, 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역량)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역량적도개발에 대한 국내 연구는 2011년에 1편(진로 및 직업상담자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4년에 2편(스포츠 심리상담사 역량, 진로상담 수행 역량), 2017년에 3편(사회정의 옹호역량, 진로진학상담 수행역량, 전문상담교사 역량), 2018년 역시 3편(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역량, 다문화상담 복지역량, 다문화 상담역량)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교육 요구 및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2011년에 1편(진로진학상담교사)으로 시작하였다가, 2014년에 1편(다문화 아동 상담), 2018년 2편(미술치료사 1편, 기관 상담자 0.5편, 애도상담 0.5편)이 이루어졌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꾸준히 1편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 효과 및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는 2011년에 연구가 1편(장애학생 상담) 시작되었고, 2012년 1편(청소년상담자 다문화 역량), 2016년 1편(진로진학지도 역량), 2018년 1.5편(놀이치료사 부모상담 역량 1편, 진로진학상담교사 0.5편), 2020년 1편(상담전공수련생의 다문화 역량) 등 연구가 매해 꾸준히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다른 변인 간 관계 연구는 2018년에 0.5편(일반상담, 다문화상담, 사회정의 옹호상담 관계)으로 앞서 기술한 목적의 연구보다는 다소 늦게 등장했다. 2019년 2.5편(사회정의옹호역량, 상담자 발달수준, 작업 동맹과 상담성과의 관계 0.5편, 진로전담교사의 업무 역량, 업무효능감,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관계 1편, 교사효능감, 교사현신, 학교진원이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 1편), 2020년 1.5편(다문화 상담 경험과 상담 역량의 관계 1편, 상담자 발달수준과 진로상담 역량의 관계 0.5편), 2022년 0.5편(경력기간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역량과 역할 갈등이 상담자 소진에 미치는 영향) 등 상대적으로 최근에 관련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역량 집단을 분류하거나 발달단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 역시 2018년에 처음 0.5편(일반상담, 다문화상담, 사회정의 옹호상담 역량의 잠재집단 탐색)으로 시작되었고, 2019년 0.5편(상담자의 사회정의 옹호역량과 상담자 발달 수준), 2020년 0.5편(상담자 발달 수준과 진로상담 역량), 2022년 1.5편(일반 상담역량, 다문화 상담역량, 성소수자 상담역량의 잠재집단 분류 1편, 경력기간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역량과 역할 갈등, 상담자 소진 0.5편)의 이 이루어지는 등 최근에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격표준화 및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는 2020년 1편(심리상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심리상담자격 표준화), 2022년 1편(가족상담사 핵심역량에 초점을 둔 상담사발달 및 핵심역량 고찰)이 이루어졌다.

〈표 5〉 연도에 따른 상담자 역량 연구 목적

연도	연구목적								계 (%)
	역량모형 개발	경험탐색, 역량에 대한 인식	역량 척도개발	교육 요구 및 교육 과정 개발	프로그램 효과 및 만족도	다른 변인 간 관계	역량집단 분류/발달단계	자격표준화/정책 제안	
2008	1								1 (1.3)
2011	1	1	1	1	1				5 (6.3)
2012	1				1				2 (2.5)
2013	1		1						2 (2.5)
2014	3	3	2	1					9 (11.4)
2015	1	1							2 (2.5)
2016	1	2			1				4 (5.1)
2017	2.5	0.5	3						6 (7.6)
2018	0.5	2	3	2	1.5	0.5	0.5		10 (12.7)
2019	1.5			1.5		2.5	0.5		6 (7.6)
2020	2.5	4	1.5	1	1	1.5	0.5	1	13 (16.4)
2021	2	4		1					7 (8.9)
2022	5	2				0.5	1.5	1	10 (12.7)
2023	1		1						2 (2.5)
계 (%)	24 (30.4)	19.5 (24.7)	12.5 (15.8)	7.5 (9.5)	5.5 (7)	5 (6.3)	3 (3.8)	2 (2.5)	79 (100)

5. 연도에 따른 상담자 역량 연구방법

양적연구, 혼합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등으로 연구 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양적 연구만 사용한 연구는 32편(40.5%)로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났고, 혼합 연구 30편(38%), 질적 연구만 사용한 연구 12편(15.2%), 문헌 연구만 사용한 연구는 5편(6.3%) 순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 방법의 경우, 2011년에 4편의 상담자 역량 연구에서 등장하였고, 2018년에 6편의 연구에서 활용되는 등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고, 2019년 4편, 2020년 5편, 2021, 2022년 2편 등 꾸준히 활용되는 연구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 방법의 경우 2014년에 3편의 상담자 역량 연구에서 활용되었고, 2015년 1편, 2018년 1편 등 드문드문 이루어지다가 2020년에는 4편의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 연구는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에 각 1편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혼합 연구 방법의 경우 2011년 상담자 역량 연구에서 등장한 이래로 매년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4편, 2017년, 2020년, 2021년에 3편의 연구에서 활용되다가 2020년에는 6편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표 6> 연도에 따른 상담자 역량 연구방법

연도	연구 방법				계
	양적	질적	문헌	혼합	
2008			1		1
2011	4			1	5
2012	1			1	2
2013				2	2
2014	2	3		4	9
2015		1		1	2
2016	2		1	1	4
2017	3			3	6
2018	6	1	1	2	10
2019	4			2	6
2020	5	4	1	3	13
2021	2	2		3	7
2022	2	1	1	6	10
2023	1			1	2
계(%)	32(40.5)	12(15.2)	5(6.3)	30(38)	79(100)

<표 7>에서 살펴보면, 혼합 연구의 방식인 델파이(18.2%) 방법이 역량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연구의 통계 방법으로는 평균비교(9.5%), 요인분석(9.3%), 상관분석(6.7%) 순으로 나타났다. 보리치 요구도 분석, 계층화분석법(AHP), The Locus for Focus 등은 모두 우선순위를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를 합쳐서 7.2%의 비율로 사용되었다. 질적 방법의 사용빈도는 내용분석(5.7%), CQR(5.1%), 현상학(4.4%)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헌연구 방법을 주요 방법으로 사용한 연구는 5.5편(7%)로 나타났다.

〈표 7〉 연도에 따른 상담자 역량 연구방법(상세)

연도	양적 연구 방법								혼합연구				질적 연구 방법					계 (%)		
	평균 분석	요인 분석	상관 분석	변량 분석	빈도 분석	다변인간 인과관계 분석	회귀 분석	잠재집단 분석	우선순위 분석	보리치	AHP	The Locusts for Focus	델파이	개념도	내용 분석	CQR	현상학		근거이론	내러티브
계						38.3 (48.4)							21.2 (26.8)			14 (17.8)			5.5 (7)	79 (100)
2008																			1 (1.2)	1 (1.2)
2011	1	0.5	0.5	1					1	0.5		0.5								5 (6.3)
2012	1												1							2 (2.5)
2013		0.5											1		0.5					2 (2.5)
2014	1	0.8	0.3			0.3							3		0.5	2	1			9 (11.4)
2015													1		1					2 (2.5)
2016	1.5		0.5										1					1		4 (5.1)
2017		1.5	1.5		0.5								2		0.5					6 (7.6)
2018	2.2	2	1.5	0.3				0.3	0.3				0.3		1		0.5		1.5	10 (12.7)
2019	0.5	0.5		1.5		0.5	0.5		1				1.5							6 (7.6)
2020		1	0.5	1	2	1	0.5						1	1			2	1	1	13 (16.5)
2021	0.3					1				0.3	0.5	0.3	1.5	1	1	1				7 (8.9)
2022				0.5		0.5	0.5	0.5	0.8		0.3	3.8	1		1				1	10 (12.7)
2023		0.5	0.5							0.5		0.5								2 (2.5)
소계 (%)	7.5 (9.5)	7.4 (9.3)	5.3 (6.7)	4.3 (5.4)	3.5 (4.4)	2.3 (3)	1.5 (1.9)	0.8 (1)	3.5 (4.4)	1.5 (1.9)	0.7 (0.9)	18.2 (23)	3 (3.8)	4.5 (5.7)	4 (5.1)	3.5 (4.4)	1 (1.3)	1 (1.3)	5.5 (7)	79 (100)

6. 상담자 역량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방법

〈표 8〉과 같이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역량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는 델파이 방법(16.3편)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탐색 및 역량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에서는 CQR방법(4편), 내용분석(3편), 개념도(3편), 현상학(3편) 연구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역량척도개발을 위한 연구에서는 요인분석(6.3편), 상관분석(4.3편)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요구 및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은 빈도분석(2편), 평균분석(1.5편), 보리치 요구분석(1.3편) 순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효과 및 만족도를 알아보기 연구에서는 평균분석(4.2편)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다른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에서는 다변인간 인과관계 분석(1.5편)을, 역량 집단을 분류하거나 발달단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에서는 변량분석(1편), 회귀분석(0.8편), 잠재집단분석(0.7편)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제안 및 자격표 준화를 위한 연구에서는 문헌리뷰(2편) 방법만 사용되었다.

〈표 8〉 상담자 역량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방법

연구 목적	양적 연구 방법							혼합 방법					질적 연구 방법			계 (%)				
	평균 분석	요인 분석	상관 분석	변량 분석	빈도 분석	다변인간인과관계 분석	회귀 분석	잠재집단 분석	보리치	우선순위 분석 AHP	The Locus for Focus	델파이	개념도	내용 분석	CQR		현상학	근거이론	내러티브 연구	문헌 연구
역량모형 개발	0.4	0.5		0.2	1.5				1.5	1.5	0.3	16.3	0.5						1	23.7 (30)
경험탐색 역량에 대한 인식	1.1		0.8	1					0.3		0.3	0.5	3	3	4	3	1		1.5	19.5 (24.7)
역량 척도개발		6.3	4.3	0.2		0.3						0.2		1						12.3 (15.6)
교육 요구 및 교육 과정 개발	1.5		0.2		2				1.3			1			0.5			1		7.5 (9.5)
프로그램 효과 및 만족도	4.2								0.2			0.2						1		5.6 (7)
다른 변인 간 관계	0.2	0.5		2		1.5	0.8	0.2												5.2 (6.6)
역량집단분류/ 발달단계	0.2			1		0.5	0.8	0.7												3.2 (4.1)
정책제안자격 표준화																			2	2 (2.5)
계 (%)	7.6 (9.6)	7.3 (9.2)	5.3 (6.7)	4.4 (5.6)	3.5 (4.4)	2.3 (3)	1.6 (2)	0.9 (1.1)	3.3 (4.2)	1.5 (1.9)	0.6 (0.8)	18.2 (23)	3 (3.8)	4.5 (5.7)	4 (5)	3.5 (4.4)	1 (1.3)	1 (1.3)	5.5 (7)	79 (100)

7. 상담자 역량 연구 분야에 따른 연구목적

연구분야에 따른 연구목적은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진로상담은 역량모형개발을 위한 연구(10편)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 역량척도개발(4편), 경험 탐색 및 역량에 대한 인식 탐색(2.5편), 다른 변인 간 관계 연구(2.5편) 순이었다. 다문화상담의 경우에는 경험 탐색 및 역량에 대한 인식 탐색(6.5편)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역량척도개발(4편) 순으로 나타났으며, 역량모형개발, 다른 변인 간 관계연구, 프로그램 효과 및 만족도 연구, 역량집단분류 및 발달단계에 대한 연구가 동일하게 각 2편씩 진행되었다. 상담자 역량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진로상담분야와 다문화상담 분야에서는 자격표준화 및 정책 제안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일반에서는 경험 탐색 및 역량에 대한 인식 탐색(7편)을 위한 목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역량모형개발(4.5편), 교육 요구 및 교육 과정 개발(3편), 역량 척도 개발(1.5편), 자격표준화 및 정책제안(1편)을 목적으로 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반면, 다른 변인 간 관계 연구, 역량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역량 집단 분류 및 발달단계에 대한 연구는 등장하지 않았다.

매체치료상담 분야는 경험 탐색 및 역량에 대한 인식 탐색(2편), 역량척도개발(2편), 교육 요구 및 교육 과정 개발(2편)을 위한 목적으로 연구가 동일한 횟수로 진행되었으며, 역량모형개발(1편)과 프로그램 효과 및 만족도(0.5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다른 변인 간 관계,

자격표준화 및 정책 제안, 역량집단분류 및 발달단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학교상담 분야는 역량모형개발을 위한 연구(2.5편)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역량척도개발(1편), 프로그램 효과 및 만족도 연구(1편), 다른 변인 간 관계 연구(0.5편), 역량집단분류 및 발달단계(0.5편)에 대한 연구가 하나씩 이루어진 바 있다. 반면, 경험 탐색 및 역량에 대한 인식 탐색, 교육 요구 및 교육 과정 개발, 자격표준화 및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기업상담,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는 경험 탐색 및 역량에 대한 인식 탐색을 위한 연구, 역량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각 1편씩 이루어진 바 있으나, 다른 목적을 위한 연구는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다. 아동상담 분야에서는 프로그램 효과 및 만족도, 교육 요구 및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 가족상담 분야에서는 자격표준화 및 정책 제안 연구, 정책역량 분야에서는 교육 요구 및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만 이루어진 바 있다.

〈표 9〉 상담자 역량 연구 분야에 따른 연구목적

연구 분야	연구 목적							계 (%)	
	역량모형 개발	경험탐색, 역량에 대한 인식	역량 척도개발	교육 요구 및 교육 과정 개발	프로그램 효과 및 만족도	다른 변인 간 관계	역량집단분류/발달단계		자격표준화/정책제안
진료상담	10	2.5	4	1.5	1.5	2.5	0.5	22.5 (28.5)	
다문화상담	2	6.5	4	0.5	2	2	2	19 (24)	
상담일반	4.5	7	1.5	3			1	17 (21.5)	
매체치료상담	1	2	2	2	0.5			7.5 (9.5)	
학교상담	2.5		1		1	0.5	0.5	5.5 (7)	
기업상담	1	1						2 (2.5)	
청소년상담	1	0.5						1.5 (1.9)	
아동상담				0.5	0.5			1 (1.3)	
가족상담							1	1 (1.3)	
기타	2							2 (2.5)	
계(%)	24 (30.4)	19.5 (24.7)	12.5 (15.8)	7.5 (9.5)	5.5 (7)	5 (6.3)	3 (3.8)	2 (2.5)	79 (100)

IV. 논의

본 연구는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이루어진 상담자 역량 관련 연구 79편을 대상으로 연구 분야, 역량 연구의 대상,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필요한 상담자 역량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상담자의 역량에 대한 연구는 2008년 진로상담 분야에서 시작된 이후로 2020년에는 상담일반, 진로상담, 다문화상담 및 매체치료상담에서의 상담자 역량 연구가 13편이 이루어지는 등 역량 연구에 대한 관심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연구의 분야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분야를 살펴보면, 진로상담>다문화상담>상담일반 순으로 역량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역량 연구의 대상은 상담자 일반>진로전담교사, 직업 및 직업상담자>매체활용심리상담사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와 연구 대상의 연구 수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다문화상담 역량에 대한 연구(강수정, 유금란, 2020; 구자경 외, 2020, 김봉환, 2012; 이아라, 이주영, 2022; 이주영 외, 2020; 임은미 외, 2018)를 진행할 때는 주로 일반 상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역량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면, 역량모형개발 연구>경험탐색 및 역량 인식에 대한 연구>역량척도개발연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3가지 목적으로 한 연구의 비율은 70%가 넘었다. 반면 교육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다른 변인 간 관계 연구, 역량 집단 분류 및 발달 단계 연구 등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었다. 즉, 이제까지의 역량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면, 상담자 역량에 대한 연구는 상담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량 모형을 개발하고, 해당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는 데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교육 요구 및 과정을 개발하는 연구, 역량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상담자에게 필요한 역량 간 관계 연구 및 상담자 발달 단계를 고려한 집단 분류 및 각 단계별 역량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최근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목적의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상담자 역량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혼합 연구>질적 연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연구 방법 중에서는 델파이 방법이 가장 많은 빈도로 활용되었다. 이는 상담자 역량모형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에서 주로 델파이 방법을 활용하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경험탐색 및 역량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CQR, 내용분석, 현상학) 등의 방법이 많이 활용되었다. 이는 역량 모형 개발 및 척도 개발, 요구도 조사 등의 역량 탐색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연구의 목적이 다양해지고, 더 많은 분야에서 역량 연구가 시도된다면, 델파이 방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방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 분야에 따른 연구 목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상담과 다문화상담과 관련된 역량 연구의 경우에는 다양한 연구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다. 반면, 다른 분야에서는 두 분야만큼 역량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가족 상담 분야에서는 필요한 역량을 탐색하거나 역량모형개발 연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량에 대한 탐색적 연구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역량 탐색 연구가 미흡한 분야에서는 역량 탐색 및 모형개발에 대한 연구가 먼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 상담 분야에서는 발달 단계별 역량 및 해당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기업 상담 및 청소년 상담의 경우에는 역량모형개발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축적된 연구의 수가 매우 적고, 다른 연구 목적을 위해서 수행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 상담자 역량 연구는 상담 분야가 확장되면서, 각 상담분야에서 일하는 상담자들의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역량을 밝히기 위해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진로상담 역량 연구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학교상담 분야에서, 2014년에는 기업상담 분야에서 역량 연구가 처음 등장하였다. 즉 각 상담 영역에서 상담자의 공통역량 대비 특수역량이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노력에서 역량 연구가 확장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역량모형개발 및 역량에 대한 인식 연구에 치중되어 왔다. 반면, 상담자의 공통역량에 대한 연구는 심리상담 국가직무능력 표준(NCS)을 활용한 심리상담자격 표준화 방안(김인규, 김승환, 2020) 연구에서 처음 체계적으로 제시되었으며, NCS에서는 상담 장면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설명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이를 공통역량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면, 특수역량을 밝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상담자 발달 연구 동향에 따르면 연구마다 상담자 발달단계를 구분하는 정의와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금명자, 정상화, 2021). 상담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발달단계별 역량을 밝히는 등 공통역량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담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상담자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밝히는 상담자 역량에 대한 국내 연구의 경향성을 살펴보고, 역량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와 미흡한 분야, 연구 방법, 연구 목적 등을 점검하여 앞으로 필요한 역량 연구의 분야와 방향성을 살펴보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상담자 역량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아직 역량 연구가 등장하지 않은 분야에서도 해당 역량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다문화 상담 역량, 사회정의옹호 상담 역량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는데, 새로운 상담 이론 및 분야의 등장이 상담자의 역량 연구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및 심리치료의 상담자 역량 교육 및 수퍼비전 역량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익숙해지고, 증강현실 및 메타버스 등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상담 및 심리치료가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비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윤리 강령 연구(이윤희, 김경민, 이상민, 2021)도 이루어진 바 있다. 비대면 상담에서는 익명성에 따른 상담관계, 정보의 보호 관리 문제, 신분 확인 및 응급 상황 대응 등 대면 상황과는 다른 상황에서의 상담자의 맥락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요구되며, 이러한 특수성이 상담자 역량 연구 및 교육에도 적극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상담자 및 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 역량 연구(Stauffer & Pehrsson, 2012)가 국외에서는 이루어진 바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아,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기대된다.

둘째, 역량 연구의 목적과 방법이 다양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 역량 탐색 및 모형 개발에서 나아가 상담자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노력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상담자의 역량 및 역량 향상이 상담자, 내담자 및 상담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한 소진 연구에서 상담자의 소진과 역량이 부적 상관이 보였다는 연구 결과(구본용, 임애자, 2022)는 상담자의 역량 향상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이렇게 상담자의 역량과 다른 변인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연

구는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담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상담자의 역량이 상담 장면에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지, 상담자의 역량이 내담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상담자의 역량 향상이 궁극적으로 상담 효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상담자의 역량 연구의 목적이 다양해진다면, 활용되는 연구 방법 또한 다양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상담자 역량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았으나, 상담자 역량과 관련된 모든 연구가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한 기초사항, 연구분야, 역량 연구의 대상, 역량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 등 5가지 분석틀을 중심으로 상담자 역량 연구를 살펴보았지만, 다른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는 상담자 공통역량과 분야별 특수역량을 기준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상담자 역량 연구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면 상담자 일반 역량과 분야별 요구 역량을 보다 명확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상담자 역량 연구 및 상담자 교육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수정, 유금란(2020). 다문화 상담 경험과 다문화 상담 역량의 관계: 다문화 태도와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371-1393.
- *구본용, 임애자(2022). 경력기간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역량과 역할갈등이 상담자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9), 657-670.
- *구자경(2012). 청소년상담자의 문화적 역량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효과분석. 청소년시설환경, 10(4), 3-13.
- *구자경, 임은미, 장은정(2020). 문화적 역량증진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상담전공수련생의 문화적 정체성 탐색 경험. 독서치료연구, 12(1), 1-25.
- 금명자, 정상화(2021). 국내 상담자 발달 연구 동향. 교육문화연구, 27(2), 483-508.
- *김강호, 정동열(2020). NCS 기반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 직무모형 개발. 직업과 자격 연구, 9(2), 193-216.
- *김경신, 박정식(2019).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직무역량 우선순위 및 요구조사. 특수교육학연구, 54(1), 143-163.
- *김도희(2021). 장애인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과 상담자에게 필요한 역량에 관한 전문가의 인식. 재활심리연구, 28(2), 59-84.
- *김수향, 탁진국(2011). 진로 및 직업 상담자의 역량진단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2), 461-481.
- *김미선, 임은미(2021). 기업상담자가 경험한 내담자의 문화다양성 및 역량강화와 옹호 경험. 질적탐구, 7(3), 373-410.
- *김미진, 권경인(2019). 상담자의 사회정의 옹호역량과 상담자 발달수준, 작업동맹 그리고 상담성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20(2), 67-87.
- *김민선(2018).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역량 자가평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4), 1101-1124.
- *김민선(2020). 상담자 발달수준과 진로상담 역량의 관계: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역량의 중재효과 검증. 열린교육연구, 28(1), 343-365.
- *김봉환 (2012). 조화와 통합 지향 카운슬링을 위한 상담자 역량 탐색. 상담학연구, 13(6), 2697-2713.
- *김성진, 한유진(2018). 놀이치료사의 부모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놀이치료연구), 21(1), 43-61.
- *김인규(2020). 상담자 역량발달 학부 교육과정 개발: J 대학교 상담심리학과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8(4), 1-17.
- *김인규, 김승원(2020). 심리상담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을 활용한 심리상담자격 표준화 방안. 교육종합연구, 18(3), 43-64.
- *김재훈, 서영석(2018). 상담역량에 초점을 둔 미술치료 전공 교육과정 및 미술치료사의 인식 분석. 상담학연구, 19(6), 395-420.

- 김춘희, 손은령(2019). 상담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원 교육방안. *교육문제연구*, 32(3), 131-150.
- *김학아, 김봉환(2015). 평생능력 개발: 전직지원상담자의 역량분석. *실천공학교육논문지*, 7(2), 155-161.
- *김형수(2018). 기관 상담자들의 교육 수준에 따른역할수행 및 역량인식과 교육요구도 차이-청소년 및 학교상담기관 상담자를 중심으로. *교육치료연구*, 10(3), 379-396.
- *김혜영, 심혜원(2014). 다문화아동상담교육실태 및 상담자 역량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2), 339-373
- *김훈희, 조남정(2023). 학부과정 상담자의 상담역량 척도 개발. *인문사회21*, 14(1). 1295-1309.
- *남현주(2014). 기업 내 상담자의 역량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HRD 연구 (구 인력개발연구)*, 16(1), 169-206.
- *라수현, 김창대(2022). 즉시성 개입에 필요한 상담 역량: 개념도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3), 691-718.
- *류영철(2014).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량모형 개발. *한국교육*, 41(4), 25-51
- *박성현, 천성문 (2021).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의 역량 모형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상담학연구*, 22(5), 163-184.
- *박승진,임선영,이모영(2018). 다문화 상담 복지 역량 척도 개발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3(2), 73-98.
- *박애실, 이준원, 박알뜨리(2022). 자살위기상담전문가의 역량 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상담학연구*, 23(2), 1-35.
- *박은솔,안선희,조대연(2018). 진로진학상담교사 직무역량 요구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5(1), 189-206.
- *박용호(2011).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량: 교육적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4(1), 117-136.
- *박지선(2020). 음악치료 슈퍼바이저 역량에 관한 질적연구. *교육과학연구*, 22(2), 177-197.
- *배미현(2022). 음악치료 슈퍼바이저 역량모형 개발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4(1), 1-26.
- *변시영,조한익(2015). 기업상담 초심자와 숙련자가 인식한 역할 및 역량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6(6), 529-551.
- *서유진(2011). 장애학생 상담교과 이수를 통한 예비상담교사들의 장애학생 상담에 대한 역할 수행역량 변화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8(2), 93-118.
- 손민호(2006). 실천적 지식의 일상적 속성에 비추어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 지식기반사회? 사회기반지식!, *교육과정연구*, 24(4), 1-25.
- *안승희, 전순영(2018). 초보 미술치료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필요한 역량. *예술심리치료연구*, 14(3), 245-268.
- *안혜신, 장유진(2021). 상담자가 인식하는 사회정의 옹호역량에 관한 개념도. *다문화교육연구*, 14(2), 25-53.
- *양현정, 박은혜, 양혁, 이상민(2016). 진로진학상담 수업이 예비교사들의 진로효능감과 진로진학지도 역량 증진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제연구*, 29(4), 65-84.
- *오정숙(2019). 진로전담교사의 업무역량, 업무효능감,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 *역량개발학습연구*, 14(3), 105-129.
- *유현실 (2009). 진로상담전문가의 역량모형 개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유현실, 김창대 (2011). 진로상담전문가의 역량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2(2), 241-268.
- *유현실, 서미아, 이주영(2020). 상담전공 학부생의 전공역량 모형 구축 및 자가평가도구 타당화: D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209-229.
- *윤아름, 변시영, 조민경, 이겨라(2020). 기관별 상담자 필요 역량에 대한 인식차: 상담자의 현장 경험 탐색을 중심으로. *인간이해*, 41(1), 23-48.
- *이동훈, 고흥월, 양미진, 신지영(2014).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다문화 청소년 상담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2(2). 281-311.
- *이무진, 주동범, 김광석, 이원석(2019). 교사효능감, 교사헌신 및 학교지원이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수행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33(1), 125-143.
- *이봉재, 박수정(2021). 학교관리자와 진로전담교사가 인식하는 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직무역량 요구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6), 187-213.
- *이성엽, 김재관(2014). NLP 상담전문가의 역량모델링 연구.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6(4), 143-169.
- *이세희, 박정식. (2022).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역량모형 개발. *장애와 고용*, 32(1), 39-67.
- *이소연, 최바울, 이정선, 서영석(2014). 수퍼바이저가 경험한 상담수련생의 전문적 역량의 문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245-270.
- *이소연, 안수정, 서영석(2020). 상담수련생이 경험한 동료수련생의 전문적 역량 문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1551-1595.
- *이아라, 이주영(2022). 상담자의 일반 상담역량, 다문화 상담역량, 성소수자 상담역량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및 관련요인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 425-444.
- *이아진, 최연실(2011). 문화적응 유형화를 중심으로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과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 *한국생활과학회지*, 20(1), 71-90.
- *이영란 (2021). 다문화상담자 역량모형 개발. *다문화사회연구*, 14(2), 77-122.
- 이윤희, 김경민, 이상민. (2021). 비대면 상담 윤리강령 기초 연구. *상담학연구*, 22(5), 77-106.
- *이은아, 고은영(2017). 범죄피해케어전문가의 핵심역량모형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8(3), 513-537.
- *이재복, 장소정, 김영신, 남목민, 조훈제, 이수정, 연구진(2022). 상담자들의 사회정의 옹호역량 발달 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1), 1-34.
- 이종성 (2001). *텔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이주영, 윤은희, 이아라(2020). 한국 상담자의 LGBT 내담자 상담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21(2), 339-359.
- *이진구, 정홍전(2020). 중장년 고용지원 컨설턴트의 역량모델 개발 연구. *직업교육연구*, 39(1), 19-42.
- 이홍민, 김종인(2003). *핵심역량 핵심인재*. 서울: 리드리드출판.
- *이현정(2014).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 상담자들의 문화적 역량 관련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2), 519-530.
- 이홍민, 김종인(2003). *핵심역량, 핵심인재: 인적 자원 핵심역량 모델의 개발과 역량평가*. 서울:리드리드.
- *임은미(2017). 한국 상담자를 위한 사회정의 옹호역량 척도 (SJACS-K) 의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

- 구, 18(6), 17-36.
- *임은미, 강혜정, 김성현, 구자경(2018). 한국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 연구, 19(1), 421-442.
- *장덕선(2014). 인문, 사회과학편: 스포츠 심리상담사의 상담역량 검사지 개발. 한국체육학회지, 53(4), 225-237.
- *장세미, 장성숙(2016). 상담 슈퍼바이저 교육과 훈련 요소 연구: 슈퍼바이저 발달 요인과 슈퍼바이저 역량 요인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488-502.
- *장진이, 천영민, 홍원경(2017). 계획된 우연 역량의 개념화와 진로상담으로의 도입을 위한 델파이 연구. 상담학연구, 18(6), 219-238.
- *장창곡, 이지연(2017). 진로진학상담 수행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8(2), 105-126.
- *전은경, 오인수(2022). 학교상담 역량에 대한 초등 전문상담교사와 중등 전문상담교사의 요구도 차이 비교 연구. 교원교육, 38(5), 281-307.
- *전희정(2018). 애도상담자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2), 602-615.
- *정환경, 김수경(2017). 전문상담교사의 역량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8(1), 349-370.
- *조남정 (2016). 상담전공 학부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탐색적 연구. 상담학연구, 17(3), 23-43.
- 조남정, 최은미, 최희진, 장선철(2010). 상담학의 연구 동향 분석:[상담학연구] 학회지 게재논문 (창간년도~ 2009). 상담학연구, 11(2), 507-524.
- *조대연, 현영섭. (2008). 미국, 캐나다, 호주의 진로교육 전문가 역량 비교 분석. HRD 연구, 10(3), 47-64.
- *조수연, 양미진 (2013). 청소년상담사의 역량모형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1(2), 59-75.
- *조명기(2019). 대학 직업상담사의 직업상담 역량모델 개발. 인문사회 21, 10(2), 1551-1564.
- *조은숙, 권혜영(2022). 가족상담사 핵심역량에 초점을 둔 상담사발달 및 핵심역량 연구고찰. 가족과 가족치료, 30(3), 381-399.
- *조향, 금창민(2022). 상담전공 학부생에게 요구되는 졸업생 역량에 대한 델파이조사 연구. 교육치료 연구, 14, 43-59.
- *주수현(2023). 상담슈퍼바이저 역량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4), 337-362.
- 최윤미(2003). 한국 상담전문가의 역할과 직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179-200.
- 최윤경(2004). 한국 상담자의 전문업무에 관한 연구. 미래교육연구, 17(2), 147-173.
- *최윤정, 김지연(2016).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진로상담 수행 역량 및 상담자 발달 수준과 직무역할: 자가평가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9(3), 23-45.
- *최윤정, 이제경(2014). 진로상담 수행 역량 자가 평가 척도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5(4), 1475-1493.
- *최윤희, 김태완(2021). 미술치료자의 전문적 역량 강화 요인에 관한 인식분석. 인문사회 21, 12(2), 2199-2209.
- *홍주연, 서귀남(2013). 매체이용 심리치료자들의 슈퍼비전 요구 척도 개발. 재활심리연구, 20(3), 481-500.

- Goodyear, R. K., Murdock, N., Lichtenberg, J. W., McPherson, R., Koetting, K., & Petren, S. (2008). Stability and change in counseling psychologists' identities, roles, functions, and career satisfaction across 15 year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2), 220-249.
- Leahy, M. J., Chan, F., & Saunders, J. L. (2003). Job functions and knowledge requirements of certified rehabilitation counselors in the 21st century.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6*(2), 66-81.
- McLagan, P. (1996). Great ideas revisited: Competency models creating the future of HRD. *Training and Development, 50*(1), 60-65.
- *Nam, J. K., Nam, J. S., & Kim, D. (2020). Multicultural competence for counseling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A focus on university counseling centers.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1043-1068.
- Sanchez, J. I., & Levine, E. L. (2009). What is (or should be) the difference between competency modeling and traditional job analysis?.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9*(2), 53-63.
- Spencer, L., & Spencer, S. (1998). 핵심역량모델의 개발과 활용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 (민병모, 박동건, 박종구, 정재창 역). 서울: PSI(원전은 1993에 출판)
- Stauffer, M., & Pehrsson, D. E. (2012). Mindfulness competencies for counselors and psychotherapist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4*(3), 227-239.

* : 분석대상논문

Abstract

Research Trends Concerning Competence Among Counselors

Park, AeShil(Hanyang University)

Park, Altteuri(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search trends regarding competence among counselors. For this purpose, the latest 79 papers on this topic, with the focus being journal papers, we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criteri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ince studies on competence in the field of career counseling began in 2008 and the field of competence research was expanded in 2020, 13 studies have been conducted. Second, regarding the purpose of competence research, competence model development was the most common, followed by experience exploration and competence recognition, and finally, competence scale development. Third, the research methods mainly used in counselor competence research were in the order of quantitative research, mixed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among individual research methods, the Delphi method was used most frequently. Fourth, regarding research purpose according to the research field, in the case of career and multicultural counseling, research was conducted for various purposes, whereas in other fields, the purpose of research on competence was not as diverse as that in the aforementioned two fiel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in finding a way forward for counselor competence research.

[Keywords]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ounselor, competence, counselor competence, research trends